

## 청소년의 성교육

김 정 태\*

### I 서 언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일과함께 성은 어느 시대건, 어느 형태로건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 깊숙히 파고들어 문제점으로 존립해오고 있다. 종족보존의 기능은 인간이 타 동식물과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별히 지적할 것이 못되나, 성은 인간의 경우 종족보존 외에도 이 행위로 쾌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이 점에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즉, 타 동식물은 각기 특유의 양상으로 자웅(雌雄)이 만나고 암수가 짝짓기를 하여 자신들의 종(種)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반해 인간은 종족보존이라는 같은 목적의 행위에서 동시에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뿐 아니라 동물의 짝짓기는 종의 보존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있게되는데 비해 인간은 생식과는 관계없이도 수시로 행위를 하고자 원하고 있어서 쾌락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같은 행위로 종족보존과 쾌락을 맞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히 축복받은 현상이라 지적할 수 있으나 왕왕 인간은 욕구추구가 지나쳐 자신이 생활해가고 있는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인간사회에서는 성을 죄악시하여 필요악으로 규정짓고 되도록 억제하도록 중용해 오고 있다.

### II. 성교육의 필요성(성의 현황)

인간만이 성행위에서 종족보존의 목적외에

쾌락을 추구해왔으므로 성은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으나 각 사회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적절한 대처를 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극히 최근까지도 성은 남성위주로 다스려졌고 남녀가 유별한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제2차대전후의 건국, 또는 한국전쟁등을 겪고 난 후 60년대에 이르면서 시작된 경제부흥은 많은 과학문명을 도입토록 하였고 이 과학문명은 서구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남녀동등, 성의 해방 등의 사조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미쳐 선악을 거를 사이없이 퍼져나가는 상태에 이르렀다. 경제개발과 함께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이에 걸맞는 쾌락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성에 대한 쾌락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었다. 성인들의 이와같은 양상은 영화, Video film 또는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사회문제의 기사내용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그 연배들과도 달라 남자들까지도 별로 성을 알 방법이 없는체 성장해온 세대들이어서 퍼져나오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예민한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 뿐아니라 국가적 요구에 의해 또는 극도로 발달된 개인주의에 의해 가족계획을 실천하였었으므로 한 가정의 자녀의 수는 하나, 둘 또는 드물게 셋 정도로 제한이 되어있어 이 소수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과잉보호는 격심한 형편에 있어 이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억제력이 없고 인내심이 전혀 발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 전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하다. 청소년들의 파잉보호영향과 인내심의 결여는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무엇이고 하고싶은데로 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모든 경우에 경쟁, 시험 등으로 당사자들이 원해서가 아닌, 환경에 밀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상태에서 인내력이 결여된 청소년들은 결코 이런 현상들에서 이기고 지나가려고는 하지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경향에 있게 되며 따라서 한층 더 향락, 내일이 없는 쾌락의 추구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울게 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현저하게 촉진되고 있는 육체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영양이 좋아지고 활동성있는 생활에 의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은 경이적일 만큼 크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지식은 없는 채로 성적인 욕구는 비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과거에는 존재하였던 창녀촌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식으로는 없어지고 있고 또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AIDS 를 위시한 성병감염에 대한 공포도 겹들여져 이런 장소의 활용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는 쉽지않은 현실도 문제일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남녀동등의 사조는 점차로 활발하게 되어 학업이며 직업에서 남녀의 구별이 극소화되고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일도 또한 청소년들의 성적동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답게(?) 문화의 전위(前衛)적 행보를 한다는 젊은 이들은 남녀친구간에 별 꺼리낌없이 성관계를 가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장차 결혼을 전제로 한다던가 하는 식의 의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 성에 대한 욕구의 양상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던 모르든간에 점차 연령이 저하되어가고 있고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결핍하면 “성폭행을 하고……”라는 기사내용이 눈에 뜨이나 근래에는 보는이들도 타성이 생긴듯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환경변화와는 달리 사회

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여자는……”이라는 것으로 고착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잘못이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를 도둑맞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의 피해자는 사회에서 냉안시당하고 있고 마치 여자의 몸으로 지킬 것을 안지켰던 것으로 여겨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된다. 성폭행……협회 운운으로 단체가 조직되어 이들을 보호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보호차원이라기 보다는 상대에게 대한 벌을 무겁게 한다는 등으로 한층 일반사회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함이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는 낙인찍힌 채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고 사회가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이주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다. 즉,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사에 의해서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관계를 갖는 젊은이들이 있는것에 반하면 자기뜻이 아닌 순수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뜻이다.

Video film 이나 포르노잡지 또는 주간지며 기타 수 없이 쏟아져나오는 정보매체에 의해 청소년들은 성기행이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노출증이며 배물주의적인 행동등이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서 나타난다. 정상적인 성도 모르는채 이상성으로 기우는 것이다. 또 근간산의 행위가 큰 죄책감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다.

위에 나열한바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놀랄만하게 광범위하고 수적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나열한 여러 행태들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거에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수적으로 적었고 비교적 비밀유지가 되어왔었으므로 전파의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또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데 비해 오늘날의 경우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웬만한 어른이면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이와 같이 되어있어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을터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야한다. 고등

학교 교육과정까지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간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교육은 전혀 묵과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것이 교과과정으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어서 바로 내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한탄을 금치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즉 교육부가 묵과한다고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모두가 속수무책일 수는 없고 따라서 책임을 통감하는 어른들 부터 교육은 실시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이제 더 이상 넘세나는 곳에 뚜껑을 덮는 일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간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개별적으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는 성의 윤리관에 정설이 없으므로 통일된 결론이 있을수 없고 누구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갖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자기식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그 점 또한 세계가 혼돈속에 있는 것과 같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교육만이 교육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도 성교육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Ⅲ. 성교육의 방법과 내용

성교육은 인간교육의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령,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며 한국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가정교육이란 가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가 아니고 실천으로 가르치는 상태라고 해야 하고 더구나 성에 관한 경우는 필요악으로 여겨졌는데서 언젠가 성장하여 알 때가 되면 아는 것일 뿐 언제 나(부모)는 누구에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았던가 하는 태도가 지배적이고 방법도 내용도 부모로서는 가르칠만큼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가정교육은 과거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풍조속에서 가계(家系)를 따져가며 많은것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이것이 크게 바뀌고 있고 이 현상을 되돌리려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용이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성이란 본체를 알고

청소년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부를 위시하여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주의깊게 아이의 변화를 지켜봐주어야 하며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체험담인 양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에게 교육할것을 기대하기란 쉽지않은 것이 실정이다.

학교교육은 시대감각을 가지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인간과 성의 관계, 남녀생식생리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의 정서변화 등(일반적으로 이점에 대한 교육은 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현재와 같이 조숙한 아이들의 경우에 시기를 재고해야 한다)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 중요하다. 생식생리에 대한 교육은 자칫 성기교육으로만 생각하고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나 청소년층은 상대인 이성은 물론 자신들의 생식생리에 대하여도 정확한 지식을 못가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때로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기도 하는것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별로 그 연령에 맞도록 알고 좁게로 시작하여 점차 깊고 넓게 등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태도에 성을 죄악시하거나 수치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설명이 곤란한 부분을 피하려는 태도로 임하게 되어 이 때문에 아이들을 오히려 자극하게 되므로 주의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제 교육에 앞서 교사를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의 정보의 홍수속에서 아무렇게나 얻어들었던 그들의 기존지식을 충분히 시정하고도 남을 만큼 자신있는 내용이여야 할 것이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하여도 건너뛰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이 덩덤하게 사실을 알려줘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내교육에 반해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의 교육은 다양하다. 교육도 중요하고 정확도 중요한 것이다. 어른들의 성의 향락을 위해 여러가지로 수습이 어려운 정보들이 무질서하게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민한 청소년들이 자극적으로 이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분야에서 다 같이 다루어줘야 함은 물론인데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고루하기만 한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함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포르노 잡지에 관하여서도 무조건 보지않아야 한다는 설득을 계속하는 일은 실제로 이미 많은 책자들이 나돌고 있어 어렵지않게 접해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결코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잡지만 어른들이 보고 즐기는 만화여서 실제로 일반부부 또는 남녀가 그런 모습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솔직해주는 편이 교육적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은 충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의 수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고 교육을 하고자 설계하는 측의 세대의 수준이어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여러가지로 복잡한 혼돈속에서 성에 대한 지식(知悉)의 폭이 대단히 넓게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측은 엄청난 것으로 느낄 만큼 2, 3세대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임해야 한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교육을 하려는 어른들인 바로 우리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놓은 환경속에서 성장해온 청소년들이 그러한 형상들을 보이도록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광적으로 까지 보이는 노래나 그것을 부르는 가수의 모습, 영화의 내용 또는 그 영화의 선전용 홍보의 실태 등으로 미루어 생각하여도 이러한 세대차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홍보나 작곡등은 기성세대에 의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청소년들이 성을 보는 시각도 이러한 현상과 유사하다고 보았을 때 교육에 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성을 죄악시·수치시하며 점잖은 척만 하는 태도로 임하는 일은 교육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자체의 정화는 당연히 이들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회의 정화가 웬만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지속하면서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여건으로 보아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육의 적격자가 될 것인가가 문

제로 대두되는데 최근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는 성관련 상담소들의 자원봉사자들의 자질도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문제점들은 나열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다음의 몇가지를 추가 지적코자 한다.

첫째로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다. 청소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들은 대체로 은어에 속한다. 또 그들만이 유통시키고 있는 유행어도 있다. 때로 교육자중에는 이들과의 동질화를 기한다는 뜻에서 그들의 용어를 즐겨 활용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대단한 오류인 것이다. 그들의 은어나 유행어를 이해하는 측면은 무관하나 교육자가 이를 받들며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교육자는 교육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용어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성기의 명칭들은 불가피하게 의학용어를 쓸 수 밖에 없으나 사전에 그릴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는 현재 우리는 특히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남녀가 동등하다는 풍조속에서 생활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 시대에는 대체로 4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 특히 육체적인 성의 발달은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그 과정에 동등하지 않은 부분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 특히 선진서구국가들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는듯이 보여져 한층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그 내용은 다르지 않고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는 남녀의 차이점을 충분히 가르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는 윤락 여성으로 불리우는 창녀의 존립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나 간단하게 다루어질 문제는 못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위하여는 솔직하고 진지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성교육은 인간교육의 일부분임을 충분히 인지한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코자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교육자가 인간의 삶에 대해 나름대로의 철학을 확고하게 한 연후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지적코자 한다.